

# 피해신고·회복까지 지원…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출범

중기부, 관계부처 대응체계 구축  
사건 발생 시 공조·역할분담 논의  
‘기술보호 신문고’ 등 도입 검토  
전문인력 공동 활용 과제 발굴  
“中企 기술보호 생태계 강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꾸러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모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 출범했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

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

입·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 입법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대책에도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피

해구제를 위해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업경찰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더욱 늘릴 방침이다.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불법행위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익명제보도 더욱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시정권고만 기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몰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기술탈취가 많은 기계, 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웅진프리드라이프, 프리미엄 웨딩홀 사업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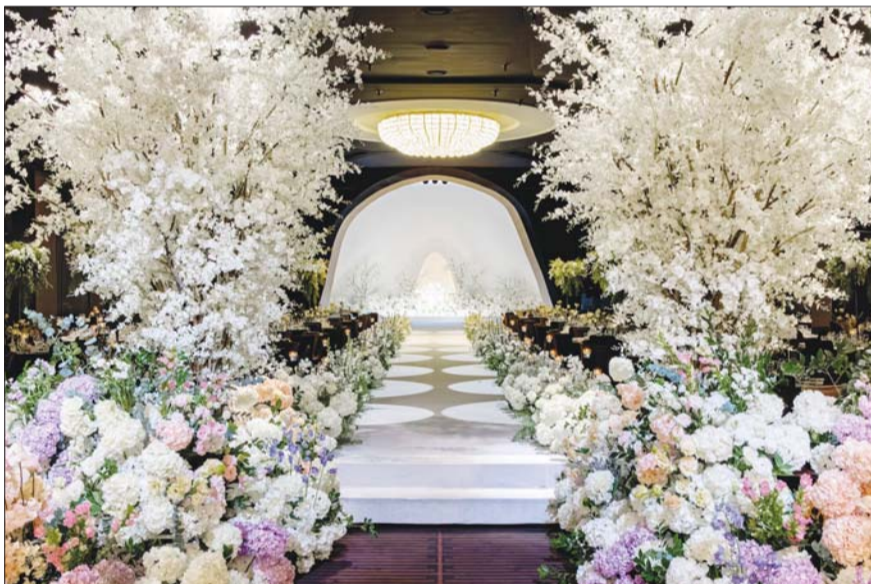
PEF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가시화  
강남·성수·신도림 핵심 거점 확대  
젊은고객 접점 넓혀 토탈 케어 강화

상조회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웨딩홀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프리미엄 웨딩 사업을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고객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프리미엄 웨딩·케이터링 전문기업 티앤더블유코리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웨딩 사업에 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랜드힐컨벤션(강남), 보테가마지오(성수), 웨딩시티(신도림) 등 서울 핵심 상권에 위치한 프리미엄 웨딩홀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웨딩홀 ‘그랜드힐컨벤션’ 전경.

해당 웨딩홀들은 연간 약 2000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급화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서비스, 우수한 F&B 운영 역량을 강점으로 한다. 웅진프리드라이

프는 이러한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성과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웨딩홀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웨딩 사업은 예식 수요가 비교적 구

준하고, 공간 운영·연출·식음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구조를 갖춘 분야로 평가받는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프리미엄 웨딩 사업을 통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예식 공간 운영을 넘어, 향후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웨딩홀 브랜드를 선보여 웨딩사업을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웨딩 사업 진출은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라이프케어 플랫폼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결혼을 계기로 젊은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한 뒤 여행, 가족 행사, 교육, 시니어 케어 등으로 서비스 경험을 확장하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연결하는 라이프케어 구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혁신벤처업계

## “벤처 4대 강국 도약”

여성벤처協 등 5개단체 신년인사회

혁신벤처업계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다짐을 더욱 공고히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벤처기업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대한민국 벤처의 성과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벤처금융 확장과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한 벤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AI 입은 전기 SUV’… 볼보, ‘EX60’ 세계 첫 공개

1회 충전 810km…10분 충전 340km  
차세대 SPA3·휴긴코어 기술력 집약  
셀투바디·메가캐스팅 등 효율 극대화

볼보자동차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기 SUV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신형 EX60을 공개했다.

볼보자동차는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순수 전기 SUV ‘볼보 EX60’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EX60은 5인승 패밀리카로 중형 SUV 부문에선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CEO는 “EX60은 주행거리, 충전 속도, 가격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이며 볼보와 고객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메가 캐스팅, 셀-투-바디, 코어 컴퓨팅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핵심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아키텍처가 볼보의 기술 역량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EX60은 사륜구동(AWD)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810km(WLTP 기준)의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볼보자동차가 지금까지 선보인 전기차 중 가장 긴 거리다. 400kW 급속 충전을 사용할 경우, 10분 충전으로 최대 34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에는 ▲최대 810km의 동급 최고 수준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는 P12 AWD 일렉트릭을 비롯해 ▲P10 AWD 일렉트릭(최대 660km), ▲후륜구동 방식의 P6 일렉트릭(최대 620km)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모두 10년 배터리 보증을 제공한다.

EX60은 차세대 전기차 아키텍처 SPA3를 기반으로 하며, 볼보자동차의 새

로운 핵심 시스템 ‘휴긴코어’로 구동된다. 여기에는 ▲셀-투-바디 기술 ▲차세대 자체 개발 전기 모터 ▲새로운 배터리 셀 설계 ▲메가 캐스팅 기술 등에너지 효율과 주행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EX60은 볼보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가운데 가장 낮은 탄소 발자국을 달성했다. EX60은 공기저항계수 0.26을 달성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의 공기저항계수(0.288)보다 낮은 수치다.

EX60은 휴긴코어 등 자체 기술 역량과 더불어 구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과의 협업이 반영됐다. 특히 볼보자동차 최초로 구글의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탑재해 특정 명령어를 기억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볼보 EX60.

개인화된 대화가 가능하다.

EX60은 정확하고 명확한 상황 인식을 위해 휴긴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추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확장된 안전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귀뚜라미

## 한파 대비 보일러 관리 “배관 보온재 점검·교체”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보일러 동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귀뚜라미가 내놓은 ‘혹한기 보일러 관리 및 난방 전략’에 따르면 겨울철 보일러 동결 사고는 대부분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한다.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난방·온수·응축수 배관은 보온재로 꼼꼼히 감싸 외부 냉기를 차단해야 하며, 보온재가 훼손됐거나 오래된 경우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뚜라미보일러에는 난방수 온도가 8℃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펌프를 가동하고, 5℃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2단계 동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다.

/김승호 기자